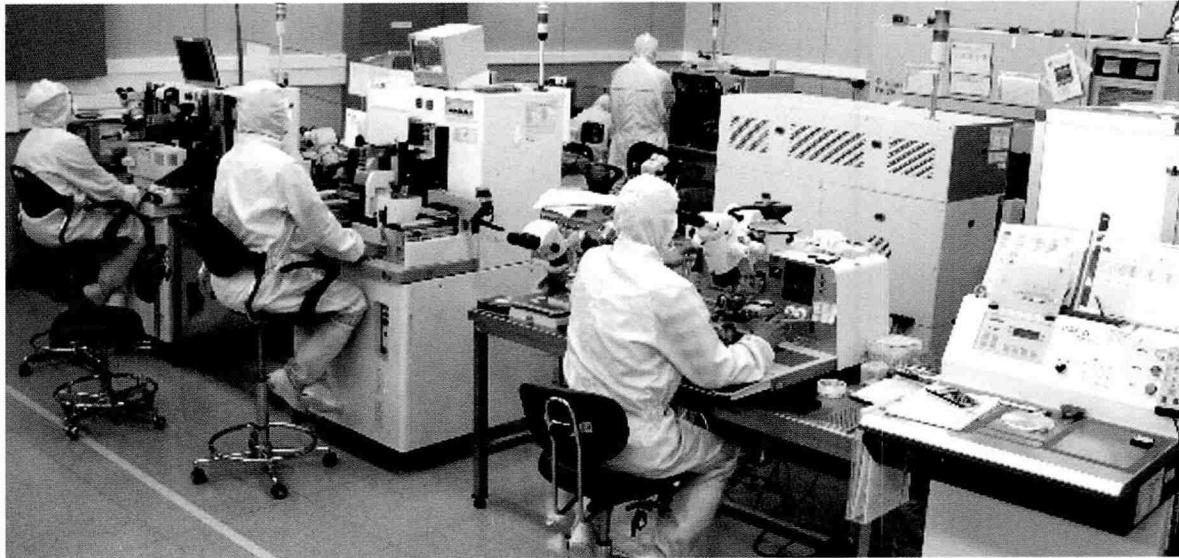


(주)오이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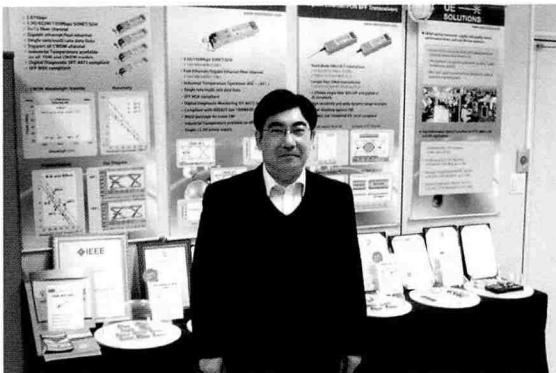
- 설립년도 : 2003년 8월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벤처지원센터 201호
- 주생산품 : 광통신용 송수신모듈, 광통신 부품(제조, 판매, 컨설팅) 등
- 전화 : 062-602-7650
- 팩스 : 062-602-7639



광통신 능동부품의 대표주자

광주 광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중에 2005년에 비해 매출액기준 10배 이상 성장한 업체가 있어 다른 업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광주에 둉지를 틀 (주)오이솔루션은 창업후 작년까지 약 50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결과 2005년에 8억원 정도이던 매출이 2006년에는 약 100여억원에 달하였으며 2007년에도 작년의 2배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개발한 제품은 KT, 하나로통신, LS전선 등 국내업체와 유럽 및 남미에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수출에 전념해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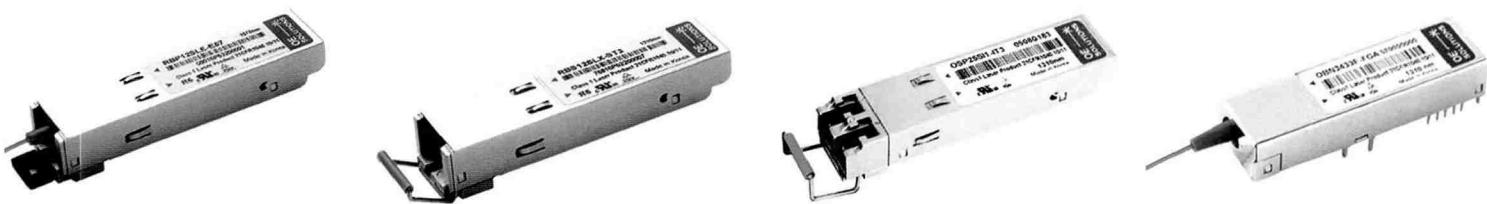


추안구 대표

세계적인 IP traffic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력 중심의 업체

세계적인 IP traffic은 점증하는 데이터량 때문에 2002년부터 매년 50%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달되는 데이터도 데이터, 음성, HDTV급 영상정보의 융합화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초고속 대용량 통신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광송수신 모듈은 기간망, 간

www.oesolution.com



오이솔루션 광송수신 모듈

선망, 가입자망, 데이터통신망 등 초고속통신망의 단말 /Node에 사용되는 SFP형 광송수신모듈(Optical Transceivers)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중인 CWDM SFP형 광송수신 모듈은 온도범위 $-40\sim85^{\circ}\text{C}$ (기준 $0\sim70^{\circ}\text{C}$)에서 전송거리 120km(기준 80km 이하)에 달하는 등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이다. 또한 양방향 단일파장 CWDM방식으로 Fiber 1선에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SFP형 BiDi Type 광송수신 모듈로서는 세계 최초로 제품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GE-PON을 개발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판매중이다.

지난 수년간 광송수신모듈은 다른 광통신 부품과 마찬가지로 기술력의 진보에 따라 성능은 향상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주)오이솔루션은 이런 시장상황에 대처하여 가격, 품질, 기술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해외 수출 중이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중심의 광송수신 모듈 제조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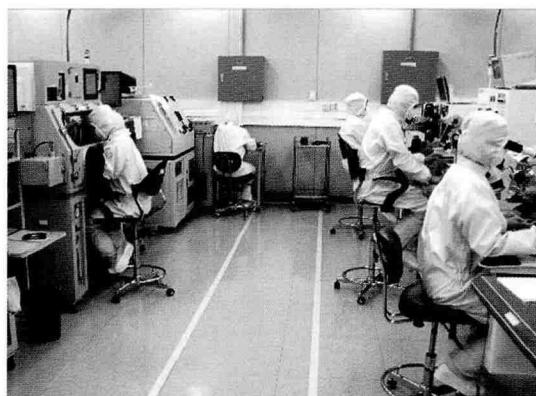
연구개발 인력으로는 미국 Bell Lab 등에서 연구개발경력 28년의 경험을 축적한 박용관(IEEE 펠로우) 공동대표와 박문수 CTO 및 삼성전자에서 광통신 부품 연구를 주도했던 추안구 공동대표 및 주요연구진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 생산 기술을 보유한 분야별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력면에서도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자체기술로 개발한 2.5Gb/s 급 SFP 광트

랜시버 모듈과 국내 첫 개발품인 FTTH용 1.25Gb/s E-PON용 모듈의 성공적인 시장진입 및 대량생산 시설을 갖추었다. 계속해서 2004년에는 광산업 2단계 특화사업 중 광통신분야의 기술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10Gb/s 급 DWDM 트랜시버의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경쟁사들 제품과 공개 비교test에서 성능을 인정 받았고 세계적인 시스템업체들로부터 공급을 위한 vendor qualification 절차를 받아 최종 승인된 업체가 일본 1개사, 유럽 3개사, 미국 2개사 등 지속적으로 구매사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이 회사 추안구 사장은 “다년간 투자한 결실이 2006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일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며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APID**



오이솔루션 광송수신모듈 생산현장